

2024년 제1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 일시 : 2024. 1. 12.(금) 14:00 ~ 16:00

◆ 장소 : 문화본부 4층 회의실

◆ 참석자 (12명)

위원장 : ○○○

위 원 : ○○○, ○○○, ○○○, ○○○, ○○○, ○○○, ○○○,
○○○, ○○○, ○○○, ○○○

배석자 : ○○○ 과장, ○○○ 팀장, ○○○ 주무관

◆ 심의안건 (총 32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13건
-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12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 6건
- 2024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선정 검토 관련 보고 : 1건

(개회)

○ 문화재연구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연구팀장 ○○○입니다. 오늘 본 회의 간사인 문화재정책과장님의 휴가로 서기인 제가 대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서울시문화재 보존에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총 32건이고요.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가 13건이고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12건,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심의가 6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관련해서 저번에 재의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정된 게 1건이 있습니다.

바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안건 진행하겠

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삼강행실도 효자도입니다. 안건 설명은 ○○○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삼강행실도 효자도>

○ ○○○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삼강행실도는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세종 때 명에 따라서 만든 책인데요. 이게 종류가 처음에 만들 때 삼강행실 효자, 충신, 열녀를 따로따로 해서 110명씩 했던 책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33명씩 줄여서 3책을 합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한글 언해를 붙인 게 있습니다. 한글 언해도 한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순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은 한글 언해가 붙기 전 이전에 110명을 모은 것들을 효자도만 따로 해서 한 것이고 그 근거는 위에 한글 언해가 없죠. 한글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인원수가 110명이라는 것. 그래서 작성 시점은 그쯤으로 보는데 세종 때 한글 언해가 붙기 직전에 중간된 자료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처음에 이것을 국가 지정으로 신청했다가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해서 다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신청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네. 질문이나 의견 없으십니까?

○ ○○○ 위원

기존에 지정된 삼강행실도가 효자도만 있는 건지 아니면 충신도 같이 된 것이 지정된 것이 있는지.

○ ○○○ 위원

서울대에 있는 제일 이른 시기 것, 그것은 충신도만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 ○○○ 위원

그럼 지정할 때 ‘효자도’, ‘충신도’ 이런 이름을 쓰나요?

○ ○○○ 위원

그것은 충신도라고 되어 있을 텐데 따로 명칭에는 그렇게 붙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삼강행실도라고 해놨을 겁니다.

○ ○○○ 위원

그럼 그냥 ‘삼강행실도’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또 효자도이긴 한데 다른 것도 그렇게 했다면,

○ ○○○ 위원

이 뒤에 또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삼강행실도가 또 있거든요.

○ ○○○ 위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목을 효자도라고 붙여야만 정확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삼강행실도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삼강행실도’라고만 해놓으면 이것인지 저것인지, 한문본인지 언해본인지, 효자도만 있는 것인지 구분이 모호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언해도 있고 그러면 이것도 그런 것을 표시해서 삼강행실도만 하지 않고 언해라든지 있는 다음에 효자도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 ○○○ 위원

그래서 ‘삼강행실도 효자도’ 이렇게 제목을 나눠놓은 겁니다.

○ ○○○ 위원

한문본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 ○○○ 위원

언해본은 삼강행실도 언해본이라고 하나까요.

○ ○○○ 위원

또 설명이 되겠지만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것은 진주에서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세종께서 백성들을 훈육 목적으로 삼강과 관련한 것들을 해서 중국사람, 한국사람 105명씩 뽑아서 책을 편찬한 겁니다. 처음에는 한문으로만 했는데 그림을 넣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한문으로 표현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해서 성종 때 언해본이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지각색으로 나오는 건데 효자도만 뽑아서 한다든가 충신도만 뽑아서 한다든가.

○ ○○○ 위원

삼강행실도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숫자가 꽤 됩니까?

○ ○○○ 위원

국가 지정은 서울대에 있는 것하고 개인소장이 있습니다.

○ ○○○ 위원

2건이군요.

○ ○○○ 위원

예. 나머지 유형문화재는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삼강행실도라고 하면 저희가 딱 느끼기에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쪽의 연구도 많이 됐고 그래서 ○○○ 교수님도 계시니까 나중에 삼강행실도를 할 때는 회화 하시는 분들도 같이 해서 회화사적인 의미도 조금 더 분명하게 밝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위원

이 작품은 아주 오래 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

씀하신 최근에 보물 지정된 것이 새로 소개가 됐는데 그게 자료가 많이 공유가 되지 않아서요. 그다음에 고려대 것은 자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말씀하신 대로 다 있지만 그림은 조금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서 예전에는 주목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금 화면에 국가 지정 삼강행실 효자도도 있고요. 도 지정도 있습니다.

○ ○○○ 위원

삼강행실 효자도.

○ ○○○ 위원

그러면 우리도 삼강행실 효자도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 ○○○ 위원

표지도 삼강행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 위원

표지가 제 기억에는 책마다 조금씩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것에 맞춰서 붙였을 겁니다.

○ ○○○ 위원

삼강행실 효자도가 아닐까요?

○ ○○○ 위원

삼강행실 효자도가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책 제목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삼강행실 효자도로 하는 것으로 지정하기로 하시죠.

○ 문화재연구팀장

그러면 삼강행실도 효자도는 '삼강행실 효자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사월입니다. 역시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사월>

○ ○○○ 위원

사월이라는 책은 생소하기는 한데 중국 명나라 때 안벽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책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벌준다고 할 때 '주벌'이라는 개념하고 '필주' 개념을 차용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도끼로 처단하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두 책인데 이게 인쇄사적인 의미가 크다는 차원에서 지정 신청을 한 겁니다. 갑진자라는 금속활자가 성종연간에 만들어진 건데 그중에서도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갑진자라는 활자가 있는데 갑진자 활자의 소자로만 찍은 책, 그러니까 작은 활자예요. 우리나라 금속활자 중에서 현재까지는 가장 작은 활자로만 찍은 책이라서 인쇄사적인 의미가 크고 내용도 그렇게 많이 알려진 책도 아니고 해서 일단 충분히 가치가 있다. 희소성의 가치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글자가 굉장히 조밀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인쇄돼서 2책 완질로 나온 게 잘 없습니다. 낙질로는 간혹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 유형으로는 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같이 조사하신 ○○○ 위원님 의견 추가로 주시죠.

○ ○○○ 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

○ ○○○ 위원

예. 저도 특별히 없습니다.

○ ○○○ 위원

이것도 사실은 보물로 올려야 하는데 국가 지정으로 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

○ 문화재연구팀장

그러면 사월은 인쇄사적 가치를 인정해서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이 가하다고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입니다. 소보우공주의입니다. 이것도 역시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소보우공주의>

○ ○○○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월과 같이 국가 지정으로 신청이 되었다가 안 된 건데요. 마찬가지로 가치가 굉장히 있는 책입니다. 국내에 완질로 남아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것은 12책이 완전히 남아 있고 무엇보다도 인쇄사적인 가치, 금속활자 중에서 1520년에 을해자라는 금속활자로 찍은 책이고요. 이것은 명나라 때 무장 우경이라는 사람이 주의를 편찬한 것인데요. 내사본입니다. 정덕 15년 윤8월에 내려준 건데 김연이라는 분이, 잘 아시다시피 광산김씨 집안에 책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광산김씨 김연 소장본이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가의 문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인데 지금 장서인하고 인장을 그대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先相公家藏書’, ‘男富儀謹追記’라고 해서 김연이라는 분이 하사 받은 것을 김부의라는 아들이 그것을 다시 인장을 발인하는 상황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지난번에 ○○○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책에도 같은 인장이 다 찍혀 있습니다. 성균관대에 특별히

이 책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 위원장

보충 설명 있으십니까? 같이 조사하셨던 두 분 설명해 주실 것이 있으신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문화재연구팀장

소보우공주의, 을해자본으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다수)

다음 안건입니다. 고열녀전 언해입니다. 이번 안건은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고열녀전 언해>

○ ○○○ 위원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고열녀전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 때 유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열녀전을 가지고서 언해로 만들어낸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중종 38년(1543년) 말에서 중종 39년(1544년) 사이에 한글로 번역을 하고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하버드 앤칭도서관이라든지 국회에도 들어왔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특히 국회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8권 8책이 완질이라고 하는데 8권 4책도 같이 2권씩 묶어서 국회도서관에 있습니다마는, 다 필사본으로 전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사본으로 간주되는데 이 책은 목판본으로 했던 당시의 판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귀하고 유일한 판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종 때의 출판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이 책의 삽화를 조선전기 대표적인 인물화가인 이상좌가 그렸다는 사실은 회화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어사적으로도 성

조를 표시할 수 있는 방점, ‘^’, ‘o’의 잔존, 타 문헌에서 찾기 힘든 한 자음 등이 반영되어 있어서 16세기 언어 사실을 살피는 데에 유용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이 자료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기에 좋은 자료라고 조사위원들이 의견을 내셨습니다. 비록 아쉬운 게 완질이 아니고 한 책만 있다는 점입니다.

○ ○○○ 위원

보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 지정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부결이 됐던 것인데요. 그때 서지학 하시는 분들하고 회화사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 서지학 하시는 분들은 회화사 쪽의 가치가 충분하다면 된다. 회화사 하시는 분들은 서지학 쪽의 가치가 충분하다면 된다.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부족했던 거예요. 부족했던 이유가 회화사 쪽에서는 이상좌가 그랬다고 패관잡기에 나오는데 패관잡기는 사실 정사라기보다는 이야기 모음집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상좌 그림이 사실 진작으로 남아 있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의 조사결과도 나중에 어디에 공개가 된다면 중간쯤에 ‘전기 대표적인 인물화가인 이상좌가 그랬다는 사실’이 아니고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정도로 바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도 안견이 그린 삼강행실도 삽화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삽화와 비교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문구를 다듬어서 내야하고 사실 이것은 그 후에 회화사 쪽에서 논문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어쨌든 결론은 이상좌의 가능성은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회화적인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것은 공시를 하잖아요. 조사보고서가 웹사이트에 뜨게 되죠. 내용을 수정해서 올려야 하겠습니까.

○ 문화재연구팀장

네.

○ ○○○ 위원

언해본이라는 표현은 안 되나요? 그냥 언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 ○○○ 위원

‘언해본’이라고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언해본 고열녀전’이 아니고 ‘고열녀전 언해본’인가요?

○ ○○○ 위원

제목이 앞에 가야 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 위원

고열녀전 언해본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 ○○○ 위원

다른 것은 ‘(언해)’라고 넣습니다.

○ 위원장

그럼 우리도 저기 국가 지정문화재처럼 ‘고열녀전 (언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 ○○○ 위원

언해를 했기 때문에 이 책이 가치가 있는 거라서요.

○ ○○○ 위원

그러면 괄호로 하는 것으로 합니까?

○ ○○○ 위원
예.

○ 위원장
다 언해가 괄호 속에 들어있으니까요.

○ ○○○ 위원
한국 목록 규칙에 의할 것 같으면 권수제명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맹자연해’라고 되어 있다면 맹자연해가 책 제목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제목은 맹자만 해놓고 언해가 다 되어 있다면 ‘맹자(언해)’ 표기 가능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고열녀전인데 제목에 언해라고 하는 말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고열녀전(언해) 이렇게 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다수)

○ 문화재연구팀장
그러면 고열녀전(언해)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

다음 안건입니다. 삼강행실도 언해입니다. 역시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삼강행실도 언해>

○ ○○○ 위원
앞에 삼강행실 효자도를 ○○○ 위원님께서 이미 설명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5페이지 포털사이트에서 자료를 토달 검색해서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가 확인하고 제가 정리한 표입니다. 원간본이 15세기 말에 성암고서박물관 등에 있고 이 책, 그러니까 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삼강행실도 언해본은 중간본(원간본 계통 복각본)으로 16세기 이후에 출판된 책입니다. 그래서 고려대, 일본, 서울대 기타 등등 여러 군데 많이 소장된 판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원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 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국가 지정문화재까지 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의 효자편에는 각 주인공의 효행 사례를 도상으로 그려서 옆쪽에 수록하고 다음에 한자를 사용하여 효행 사실을 본문으로 넣고 이어서 시와 찬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상변란 위쪽 서미 부분에는 언해를 넣었는데 언해가 국한문혼용입니다. 한자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한글만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한문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원래 초기 정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시 부분은 명 초에 간행되고 효순사실에 수록된 칠언절구 2수를 옮겨 실었고 찬이 없는 경우는 시까지만 수록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시, 찬은 모두 읽기 쉽게 백권점으로 표점해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삼강행실도 언해는 1434년에 간행된 원간본을 저본으로 성종 연간에 언해본 1권으로 간추려 편찬했고 이 판을 저본으로 1580년경 전라남도 곡성현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언해 중간본이라고 봅니다.

이 삼강행실도는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동일 판본이 매우 희귀합니다. 또한 이 자료에는 방점 표기의 혼란 및 음운 표기, 문법 등에 16세기 한글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어 한글 변천사뿐만 아니라 서지학 및 판화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라고 얘기를 해서 이 자료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네.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도 ‘삼강행실도(언해)’로 통일을 해야 할까요?

○ ○○○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삼강행실도(언해) 이런 명칭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

○ 문화재연구팀장

삼강행실도(언해)는 지정가치가 있음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서궁일기입니다.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서궁일기>

○ ○○○ 위원

이 자료도 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같은 날에 조사되었던 자료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목대비에 관련된 기록으로서 계축일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대 왕인 선조의 계비 인목왕후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아들 영창대군의 비극적인 삶을 그린 실기문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축일기라고 불리는 이 필사본은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 왕실 여성의 삶과 당시 풍속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글박물관 소장본은 현재 남아 있는 이본 중 원본에 가장 가깝고 필사시기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2권 본문 안에 병오년(1846년) 및 3권에 정미년(1847년)의 필사기가 있습니다. 원본에 가까운 또 다른 이본인 낙선재본 계축일기는 한국전쟁 때 소실되어 현존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조선역대여류문집에 영인본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본 서궁일기는 조선 후기 여성들의 글 읽기가 활발해지는 현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 여성사적인 가치가 매우 큰 자료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필사한 여성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 물론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처로 표기했지만 여성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조선 후기 여성 자신의 글읽기, 글쓰기와 의식 성장, 여성 자신의 존재감 부각을 알려주는 면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서 서울시 유형문

화재로 지정하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명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위원

여기에 시대를 필사라고도 써야 하나요? 왜냐면 시대를 쓸 때 1846년, 1847년 필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보통 지정할 때 그냥 연도는 지정하는데 필사라는 명칭까지는 쓰지 않는 것 같아서요.

○ 위원장

사건이 일어난 지가 이르고 후대에 다시 썼다는 의미인가 보죠?

○ ○○○ 위원

의미는 그렇게 되기는 해도 지정할 때는 대상물에 대한 것을 지정하지 필사여서 지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서요. 원래 중간본이 나온 것은 1580년 이렇게 나오는데 선조 연간에 했다고 해서 선조 연간 중간이든지 이런 것은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도는 어느 시기만 딱 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위원장

필사라는 말을 빼고요?

○ ○○○ 위원

예.

○ 위원장

서지학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 위원

1613년의 일을 1846년에 필사했다는 말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 ○○○ 위원

왜냐면 일반적으로 원본이 있고 후대에 하더라도 제작된 시기를 표시하는 것이지 그게 필사든지 인쇄든지 그런 것은 쓰지 않아서 1846년이나 1847년이어도 의미가 훼손되지는 않고 어쨌든 이 내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빼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회화사 쪽에서도 그런가요? ○○○ 위원님, 그림의 경우는 어때요?

○ ○○○ 위원

그림의 경우는 예를 들면 태조어진 같은 경우도 두세 번 이모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1872년에 세 번째 이모한 게 지정되어 있거든요. 제작연대를 1872년으로 봅니다. 이모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유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물건의 제작연대를 연대로 보죠.

○ 위원장

그러면 필사를 빼고 해야 하겠네요.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 ○○○ 위원

그러면 '1846~1847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시죠.

○ ○○○ 위원

그런데 서궁일기라는 게 우리가 아는 인목왕후 얘기하고 1800년대에 서궁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같이 해요?

○ ○○○ 위원

원래 KCR(한국목록규칙)에서는 원래 간행된 연도가 아닐 경우에는 필사 또는 발문 또는 어디에서 가져오면 그 부분을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서울시 유형문화재인데 이것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

셔도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아니, 그런데 할 때 꼭 필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겠죠?

○ ○○○ 위원

예.

○ ○○○ 위원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지 그것을 왜...

○ ○○○ 위원

시대라고 하는 것과 필사는 맞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 ○○○ 위원

아니, 시대라는 게 그 원본이 아니고 필사본을 얘기하는데 왜 원본식으로 얘기해요?

○ 위원장

그림도 그렇고 이런 책도 그렇고 방금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조어진을 계속 그려도 마지막에 그린 시기를 적고, 왜냐면 원본이 있지만 그것을,

○ ○○○ 위원

아니, 어진은 원본이 없어서 새로 만드는 건데 이것과는 다르죠. 이것은 베낀 거예요.

○ ○○○ 위원

이것과 같은 게, 어진도 베낀 겁니다.

○ ○○○ 위원

그런데 어진은 대개 앞에 있는 게 훼손돼서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원래 원본이 있었던 것을 하는 거니까 필사를 뺄

이유가 있는가 하는 거죠.

○ ○○○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고열녀전 등 나머지 것들도 다 인쇄 시기를 써줘야 해요. 언제 중간 이런 것을 다 써줘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유형문화재 설명 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사기가 1847년이잖아요. 그래서 ‘1846~1847’ 이렇게 해도 나중에 설명문 안에 필사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는데 기존에 문화재를 지정할 때 그런 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통일시켜 할 수도 있습니다.

○ ○○○ 위원

저기 보면 제목에 아예 필사본을 넣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필사본’을 넣는다면 정확하기는 하죠.

○ ○○○ 위원

굳이 그것은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그렇게 되면 간본에 대한 필사본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괄호를 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 문화재연구팀장

제가 볼 때는 문화재 등록을 할 때 분야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미술사 분야에서 표기하는 방식하고 서지 쪽에서 표기하는 방식하고 약간 달라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든 결정을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전적은 서문 연대를 넣고 판본 연대를 넣고 되게 표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 ○○○ 위원

아니, 이 자체가 간본이라면 문제가 다른데 이것은 다 필사로 된 것 아니겠어요. 간본이 원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사본이라고 하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니까 간본하고 필사본의 의미가 되니까 그냥 필사라는 의미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 위원장

그런 의견이시면 ‘(필사본)’을 넣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지 않아요.

○ ○○○ 위원

아니, 그것은 간본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 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궁일기’로 하고 연대는 ‘1846~1847’로 하고.

○ ○○○ 위원

‘~’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 위원장

그러면 점만 찍어요? 이것도 표기방법이 굉장히 이상한데요. 왜냐면 이 책을 보면 병오년 및 정미년이잖아요. 그러면 것을 따로 따로 연대를 쓴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 위원

필사를 하다 보니까 2권 필사하고 한 해 지나서, 예를 들어 12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1월에 필사를 하다 보니까 연도를 정말 양심적으로 적다가 이렇게 된 거죠.

○ 위원장

‘~’표시를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불상을 만드는데 전에 시작해서 그다음 해에...

○ ○○○ 위원

그렇지 않으면 최종 완성된 연도가 1847년이기 때문에 1847년으로 해야
완결되는 것이지 이렇게 앞일부터 쪽 해서 몇 년 동안 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847년이예요.

○ 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지금 말씀대로 1847년 하나만 넣어야 해요.

○ ○○○ 위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안에 내용이 있잖아요. 1846년부터 작업된 것
도 있다고 하나까요.

○ 위원장

그러면 1847년만 넣는 데 동의하세요? 아니면 ‘~’를 넣는 게 어떤가.

○ ○○○ 위원

권이 천, 지가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천권에 필사한 스타일하고 지권에
필사한 스타일이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달라서 천권을 필사한 연대
는 1846년이고 지권은 1847년이고 딱딱 떨어지거든요.

○ 위원장

그러면 ‘~’표시를 하는 것으로 하죠.

○ 문화재연구팀장

그러면 서궁일기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음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시대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고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예주시왕생칠재의찬요입니다.

<예주시왕생칠재의찬요>

○ ○○○ 위원

예주시왕생칠재의찬요는 법장사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인데 이미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신청된 남산도서관 소장본이 있는데 남산도서관 소장본보다
상태가 좋은데 판심 부분에 서너 장 훼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더
나온 판본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자료
는 불가로 하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표지 상태도 썩 좋
지는 않고요. 판 자체는 깨끗하고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불가라
고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다 동의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불가로 하겠습니다.

○ ○○○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먼젓번 서궁일기에는 연도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왕
대를 다 써주잖아요. 이것만 그게 빠져 있어서 이번에 안 넣을 건가 해서
요.

○ ○○○ 위원

연호년을 쓰신다면 통일성 있게 다 쓰시면 되고 없다고 하면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KCR에서는 연호년을 기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기년을 괄호로 넣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검색할 때
이 연도가 빨리 문자로 되어 있는 게 검색이 어렵더라고요.

○ 문화재연구팀장

기존 사례를 검토해서 추가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하겠습니다. 현수제승법수입니다. 안건은 ○○○ 위원님께서 설
명해 주시겠습니다.

<현수제승법수>

○ ○○○ 위원

잘 아시다시피 현수제승법수는 현수 법사가 대장경에 나타나는 법수를 모

아서 편찬한 책입니다. 이것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판본상의 계통을 통해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어떤 지역이냐 이런 것을 따져보고 거기에서 중요도를 판단하는 차원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1500년 합천 봉서사 판으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 책이 그 판을 일본에서 다시 그대로 번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본의 계통만 보면 일본 판이라는 것을 지질이나 판각의 상태를 보고 판각해야 하는데 간기만 보면 봉서사 판으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지정된 상황을 보면 같은 책들이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불가로 일단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문화재연구팀장

그러면 다음 안건 수선총도입니다. 이 안건은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수선총도>

○ ○○○ 위원

수선총도는 크기가 큰 지도인데요. 원래 지도는 이렇게 접어서 쓰기 때문에 접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소장 경위는 2020년에 문화재 매매업자에게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에 많이 알려진 지도라서요. ○○○이셨냐? 그분께서 소장해서 알려져 있다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소장자가 바뀐 것 같습니다.

수선총도는 다들 아시듯이 서울지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현재 목판인쇄인데 이게 조금 특이한 것이 목판인쇄를 한 다음에, 왼쪽 이 부분은 다시

필사로 그려 넣은 거예요. 그런데 전체 종이가 크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해서 붙인 게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특이한 것은 참고 사진을 하나 보시면 수선총도는 사실 여러 개가 남아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2011년인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겁니다. 이것과 거의 똑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보시듯이 목판인데 여기가 없죠. 그런데 이것도 초간은 아니고요. 어느 시점에 처음 수선총도가 한 번 판각이 되고 그것을 다시 모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것은 그 모각을 한 것에 다시 또 여기에 필사로 덧붙여서 그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수선총도는 서울역사박물관에도 있고 영남대박물관에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 오늘 검토 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필사로 서울시 외곽부분을 더해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통상 이 수선총도의 제작 연대는 지도에서 항상 그렇듯이 어떤 건물이 등장하느냐? 어떤 건물이 없어졌느냐를 가지고 많이 판단하시는데요. 애초에 수선총도의 제작시기는 1788년에서 1824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때 아마 처음으로 판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후에 그것을 여러 차례 판각하는데 지금 이 용산역사박물관 소장 작품은 거기에 경우궁이라고 나옵니다. 경우궁은 생건 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1824년보다는 그 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마 1824년에서 1870년 사이에 제작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사박물관에 기 지정된 것과 세부적으로 비교를 하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각을 한 것이라든지 지명을 써넣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연대대로 순차적으로 원본이 있었고 서울역사박물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 용산역사박물관 것이 나오는 순서가 아니고요. 원본이 있고 거기서 서울역사박물관 본이 파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역사박물관 본을 기초로 한 게 아니라 원본을 기초로 용산역사박물관 것이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판각한 내용들을 아주 면밀하게 따져보면 그 순서를 그렇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작품이 되고요.

그다음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은 김정호가 그렸다는 수선전도라고 심플한 게 있죠. 수선전도에 비해서 수선총도는 훨씬 상세하고 특히 시전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점에서

중요한데 필사된 부분이 공교롭게도 남대문하고 서대문 바깥쪽이거든요. 그것이 아마 19세기 후반에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칠패라든지 초물전, 어물전 이런 지명들이 추가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작연대는 기 지정된 서울역사박물관 것보다 조금 더 후대이지만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원래의 원본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 지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자들은 다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가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 위원장

예. 애쓰셨습니다.

○ ○○○ 위원

필사된 부분이 19세기 중반 경으로 보고 있는 거죠?

○ ○○○ 위원

중·후반이죠. 그 역시 지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종이가 큰데 찢고 필사를 했거든요. 이것은 거의 동시에 했다는 거죠.

○ ○○○ 위원

원래 종이에 한 겁니까, 아니면 혹시 덧붙여서 한 겁니까?

○ ○○○ 위원

덧붙이지 않았어요.

○ ○○○ 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추가한다든가 그려 넣으려고 생각한 거네요.

○ ○○○ 위원

연구자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제작을 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깎아서 하기보다는 판이 있으니까 찍고 이것은 그려 넣었다고 보는 것이죠. 거의 동시기에 했을 것이다.

○ ○○○ 위원

서대문 그쪽에 있는 것이 시장이 좀 더 많은가요?

○ ○○○ 위원

글쎄요. 이 지도로 보면 그렇죠. 그때 중요해진 거죠.

○ 문화재연구팀장

저기가 성저십리 서부 지역인데요. 저때 18~19세기에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마포나루 있고 하나니까요. 그리고 수선총도는 사실 수선전도보다 범위가 좁아서 한강이 표현이 안 됩니다. 용산, 한강 이쪽은 표현이 안 돼서 아마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부지역, 특히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을 추가로 그렸던 것 같습니다. 저 지도의 약점이 그겁니다. 사대문 안만 그리고 있어서, 원래는 성저십리까지 그리면 좋는데 그래서 불편해서 서부 지역을 추가로 그린 것 같습니다. 되게 흥미롭습니다.

○ ○○○ 위원

여기 보이시는 이 외곽도 여기는 다 판각을 한 것이지만 여기는 다 그린 거예요. 그린 것이지만 거의 다 비슷하게 그려 넣었습니다.

○ 위원장

2010년도에 수선전도 지정할 때는 괄호를 하고 한자도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통일해서 한자를 쓰는 게 어떨까요?

○ ○○○ 위원

명칭은 그것을 따라서 통일시켜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요.

○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문화재연구팀장

수선총도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금동 마상배입니다.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금동 마상배>

○ ○○○ 위원

제가 발표할 게 금동 마상배하고 마령, 마지막에 정수병까지 세 개인데요. 다 고려시대에 해당되고 개인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녹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녹보다는 새로운 녹을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수리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마상배 중에서도 크고 마령 중에서도 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만들 때 잘 만들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만들어서 했던 것이 조금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고려시대에 해당되는 것들은 출토지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예전 것을 다시 수리하거나 했으면 출토지가 정확하게 나왔어야 하는데 이것을 지정하게 되면 흠치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마상배는 지정 불가하다고 했고요.

□ <금동 마령>

마령도 거의 같습니다. 색깔이 똑같은 녹색에 현존하는 것들이 아직 지정된 게 없고 이와 같은 것들을 수리하면서 출토지가 어디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우선 마상배하고 마령은 지정할 수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 <청동 은입사 연화문 정수병>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청동 은입사 연화문 정수병인데, 왼쪽에 보이는 것이 지정 신청이 들어온 건데 보시면 그동안 알고 있는 국보라든지 청자 또는 은입사 향완들과 비교해봤을 때 여기가 굉장히 둔탁해요. 아래쪽이 통통하고 위가 두껍게 되어 있는 형상이고 일반적으로 청동으로 되었을 때의 색보다는 황동에 가까운 색깔로 되어 있고 아래쪽을 보시면 중간에 여기에 수리를 하면서 붙여놨는데 청동 은입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런데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것들은 그렇지가 못하고 수리한 흔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사가 조금 떨어져 나간 것들이 있어서 기존에 지정했던 것들에 미치지 못하고 이것도 역시 출토지라든가 누가 가지고 있었다든지 하는 이력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조사자 세 명은 이런 경우는 지정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정불가로 판정했습니다.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마상배도 그렇고 마령도 그렇고 인위적으로 한 녹이라고 하셨잖아요.

○ ○○○ 위원

네.

○ 위원장

그런데 만약 이게 고려시대의 것이라고 하면 자연녹도 있었을 텐데 인위적으로 녹을, 그럼 이게 문제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은 맞나요?

○ ○○○ 위원

고려시대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보존처리 할 때도 현재 나오는 저것을 저희가 뜯어서 조사해볼 수가 없어서 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출토됐던 것과 그렇지 않은 녹을 많이 보게 됐는데 이것은 출토되지 않은.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서 넣은 녹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해당되는 녹의 형상들이 있어서 보존과학을 하는 분들께 여쭙봤더니 그분들도 녹을 만들어서 생성할 때 보이는 새로운 녹이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 위원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만들어서 했다는 느낌이 많이 나고요. 사실 이것을 지정한다면 정말하게 분석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복원했던 부분이 어떤 것으로 복원되어 있는지를 보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도금할 때 수은, 아말감법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보면 되는데 불가로 하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녹 상태 등이 나중에 만들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 ○○○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반짝거리는 게 보이시죠? 이것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반짝거립니다.

○ ○○○ 위원

저것은 떼어보면 안쪽을 볼 수도 있거든요.

○ ○○○ 위원

정병은 은입사 문양도 고려시대 양식이 아니잖아요.

○ ○○○ 위원

네. 고려시대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 양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중앙에 있는 문양도 조선시대 양식이 많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여의두 문양이라든가 아래쪽에 있는 문양들이 현대적으로, 그러니까 고려시대를 잘 모르는 사람의 도상을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자세히 설명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잘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굉장히 잘 만든 은입사에 속하거든요. 생각보다는 잘 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청동에 하지 않고 황동에 해서 소재도 조금 바꿔야 해요. 이분이 청동에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황동이었던데요. 그래서 그런 소재에 대한 부분, 도상에 대한 부분이 이 은입사로 한 것은 굉장히 공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여의두 문양이라든지 아니면 연꽃문양 같은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안쪽에 있는 이 문양도 고려시대보다는 조선시대에 더 가까운 문양이어서 고려시대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세 건을 깔끔하게 빨리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건에 대해서는 지정 불가로 결정하겠습니다.

<풍납동토성 경당지구 206호 건물지 출토 유물>

○ ○○○ 위원

한성백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인데요. 풍납동토성의 경당지구 206호라고 큰 건물지가 있는데 그 한쪽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 안에서 일괄로 출토된 토기들인데요. 실제 이번에 올라온 것은 60건 60점입니다만, 실제 발굴은 더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을 수행했던 한신대학교 박물관에서 현재는 유물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속 관계는 다 정리가 돼서 이것을 다 일괄로 함께 다시 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보류로 해놨습니다.

유물에 대해서만 살짝 더 브리핑을 해드리면 66페이지에 일괄로 쪽 넣어 놨는데요. 왼쪽 맨 위에 있는 것은 왜식 토기가 아닌가. 장군처럼 생긴 왜식 토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이나 전라권의 마한 지역에서 올라온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릇들이 최소 7~8여종이 있어서요. 그리고 각 향아리, 병에 따라서 휘기, 제사의식과 관련해서 깨서 묻는 휘기 위치도 달라서요. 그런 것들은 일단 전체를 다 모은 다음에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현 시점에서는 보류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그러면 이 건은 보류가 되고요. 5분 쉬셨다가 3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

(속개)

○ 문화재연구팀장

다음은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당태종이위공문대직해입니다.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당태종이위공문대직해>

○ ○○○ 위원

서명(書名)이 조금 길고 특이하기는 한데 이게 뭐냐면 무경칠서라고 해서 무에 관련된 조선 전기부터 간행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삼락직해 등 직해 7종류의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당태공이위공문대직해, 그러니까 당나라 태종이 이정이라는 사람에게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이 책이 현재 판본이 국내에는 완질이 없고요. 낙질로 있는데 지금 보물로 지정된 것 중에는 학봉 종가에 있는 것이 한 세트로 전체 일괄로 지정될 때 같이 들어가서 지정된 게 있고 그 다음에 고려대도서관에 1577년, 그러니까 간행연대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사기록이 있어서요.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이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 제목이 시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나면 책을 아예 해체를 해서 뒤집었어요. 뒤집어진 빈 부분에 시경집주라고 필사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유물은 다시 뒤집어야 하는 겁니다. 재활용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은 책이고 73페이지 밑에 나오는 을해자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 국회도서관장이신 임명석이라는 분이 책을 국회도서관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록정리를 하러 갔다가 ‘이런 게 있나요?’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완전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문화재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귀중하네요.’라고 했더니 국회도서관에서는 국가 지정으로 올린 거죠. 그래서 국가 지정만 아니면 시 유형으로 충분히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부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거기다가 제대로 얘기가 되려면 다 해체를 해서 새로 봐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형태가 아니고 중·하만 남아 있습니다.

○ 문화재연구팀장

당태종이위공문대직해는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에 미흡한 것으로 결정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

다음 안건입니다. 선종영가집 언해입니다.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선종영가집 언해>

○ ○○○ 위원

이 자료도 잘 알려진 책입니다. 선종영가집이라고 당나라 영가 선사의 집인데요. 이것도 판문학상으로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초판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책인데 다른 데 소장되어 있는 것보다 동국대하고 규장각에 있는 것들은 상권 따로 하권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하 한질이 등장한 것이어서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76페이지에 그 내용을 써놨습니다만, 원형유지 정도에서 처음부터 동일한 세트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로 따로 있다가 한 세트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세트로 남아 있는 선종영가집 간경도감 초간본일 경우는 국가 지정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올렸습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크게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 위원장

추가적으로 ○○○ 위원님, 설명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 위원

이런 자료는 대단한 자료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트가 처음부터 한 세트로 된다고 하면 좋을 뻔했습니다.

○ 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국가 지정문화재로 신청 가능한 것으로 하시죠.

○ 문화재연구팀장

제목은 어떻게 할까요?

○ ○○○ 위원

이것도 아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종영가집(언해)’

○ 문화재연구팀장

그러면 선종영가집(언해)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이 가하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

다음 안건입니다. 소상팔경도 병풍입니다.

□ <소상팔경도 병풍>

○ ○○○ 위원

개인이 소장하고 있고요. 소상팔경도를 네 폭의 연폭 병풍에 그린 작품입니다. 소상팔경도는 널리 알려져 있듯이 중국의 아름다운 경치이고요. 팔경 그림을 복송 때부터 그리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때부터 소상팔경도를 그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조선초기부터는 작품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말기까지 계속 그려지는 주제이고요. 그래서 이 작품도 국가 지정문화재로 신청하면서 고려시대의 이굉필의 작품이라고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굉필이 소상팔경을 그렸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신청할 때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 작품을 살펴봤더니 사실 이 소상팔경도는 조선 초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많이 전래가 되면서 일본에서도 무로마치 시대, 15세기부터 많이 그림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특징이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화첩이 됐건 병풍이 됐건 족자가 됐건 한 경치를 한 화면에 그리는데 일본에서는 두 장면을 한 폭에 그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과 그게 조금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보게 되면 이게 금빛이 나는데요. 실제로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는데 금박은 아닌 것으로 판정이 돼요. 그렇게 뭔가 금빛이 나는 종이로 바탕을 삼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산수팔경 그림 외에도 시가 적혀져 있는데요. 원래 잘 알려진 시 내용이 중국 남송대의 옥간이라고 하는 승려화가가 그린 소상팔경시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옥간의 소상팔경시, 문학작품이 따로 전해지고 있고 이것이

일본에서 차운을 해서 와가로 많이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참고도판으로 다카오카시의 쇼코지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과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옥간의 소상팔경시가 일본에서 전해지고 있는 그 내용이 지금 이 작품에 적혀 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조선에서 적은 사례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조선의 작품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화풍을 살펴봤는데 역시 화풍도 무로마치시대의 화풍이 조금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게 그 후대인 에도시대의 화풍하고 오히려 더 가깝고 고려나 조선시대의 화풍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작품은 한국에서 그려졌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 특히 한국에서 소상팔경도가 많이 그려졌던 조선시대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일본일 가능성이 많은데 일본에서도 한참 후대가 될 것이고 특히 종이 재질 등으로 봤을 때는 제작연대를 특정하기가 힘든 상당히 후대로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 문화재연구팀장

뒤에 있는 김정희 필 목란도와 이하응 필 목란화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 <김정희 필 목란도>

○ ○○○ 위원

뒤의 두 건은 같은 소장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림들인데요. 우선 첫 번째 것은 김정희의 목란도라고 되어 있고 보시듯이 부체에 그린 그림입니다. 풍은 비슷하게 그렸고 내용도 추사 김정희가 자주 쓰던 ‘인정향투’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면의 오른쪽에는 민영익의 글과 도장이 찍혀 있고 왼쪽에는 김용진이 제시를 쓴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구성은 잘 맞게 되어 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이 그림의 화풍 그다음에 추사의 글씨체나 운미의 글씨체, 김용진의 글씨체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찍혀 있는 도장을 보면 도장을 한꺼번에 찍은 듯한 인주 색깔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도 역시 국가 지정으로는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이하응 필 목란화>

그다음에 마저 말씀을 드리면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목란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경우도 거의 흡사합니다. 전체 구성을 보게 되면 사진으로 보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 역시 하나 하나 뜯어보면 그림이라든지 특히 위의 흥선대원군의 글씨라고 하는 것이나 인장 등이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가 지정 신청으로 가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세 건인 만큼 질문도 많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현재 찍혀 있는 김정희라든지 삽화에 있는 도장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건가요?

○ ○○○ 위원

다 있는 거예요. 다 알려진 거예요.

○ ○○○ 위원

이하응 필 목란화가 만약 진품이면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어요?

○ ○○○ 위원

저희는 진위 문제보다 그림 같은 것은 예술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하응이나 김정희는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거나 예술성이 뛰어나야 하는데 예술성이 뛰어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 ○○○ 위원

만약에 국가 지정문화재가 안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서울시로 한다면,

○ ○○○ 위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 위원

그때 봐서?

○ ○○○ 위원

예.

○ 위원장

근데 소장팔경도 읽어보면 일본 에도시대 이후 정도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국적 문제도 심각한데요. 금지를 쓰고 종이 재료도 그렇고. 소장팔경도 서체는 어떻던가요?

○ ○○○ 위원

흥내는 다 냈어요. 얼핏 보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누가 좋은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 옛날 것을 충실히 참고해서 뭔가 해놓은 게 역력합니다.

○ 위원장

세 건에 대해서 다른 질문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

○ 문화재연구팀장

그러면 소장팔경도 병풍, 김정희 필 목란도, 이하응 필 목란화 지정 불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조 어필첩입니다.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정조 어필첩>

○ ○○○ 위원

이것은 지정 신청하신 분이 정조 어필첩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미지를 먼저 보시면 정조 어필첩이라고 하는 근거로 별지에 정조 어필첩이라고 써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근거이고요. 그 바로 옆에 문서가 시작되는데 타원형으로 된 인장, 조선국이라는 인장이 있고요. 그 옆의 그림 문서 끝나는 지점에 홍재라는 정조의 호하고 '홍재'라는 방향의 인장이 찍혀 있어서 정조의 친필이 아니냐는 취지로 신청을 하셨는데 일단 별지에 쓰여 있는 것은 후대에 따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기에는 희박하고 '홍재'라는 글체는 필체도 조금 차이도 있지만 먹의 진하기가 원본을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요. 조선국 인장은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었는데 그것은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정도인데, 그 옆의 홍재 인장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날 조사에 임해주셨던 장유승 교수님이 정조의 어필에 관련된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신데 정조 어필은 다른 데에 이런 어필을 남겼다는 기록이 반드시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록에 대해서는 기록 자체도 남아 있지 않아서 이것은 가짜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진짜라는 근거도 희박하다. 그래서 지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문 없으시면 조사자 의견대로 신청 불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 문화재연구팀장

네. 다음은 백자 대호 2건이 신청이 됐는데요. ○○○ 위원님께서 2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백자 대호1>

<백자 대호2>

○ ○○○ 위원

우리가 소위 달항아리라고 부르는 건데요. 백자 대호 1과 2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소장자이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달항아리가 아래, 위에 따로 해서 붙이는데요. 이것은 둘 다 한 번에 뽑아 올린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96페이지나 100페이지에 보시면 안에 물레 조정했던 흔적 외면의 유약이 내려왔는데 그 유약이 일단 조선시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건조방식은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려고 특히 굽 안쪽에 남아 있는 모래 빛음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듯한데요. 일단은 성형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구연도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출토유물이나 전세품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형태의 구연부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17세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항아리라고 부르는 40~42cm대가 있고요. 49~50cm에 육박하는 두 종류로 나뉘볼 수가 있는데요. 둘 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전반이 집중적으로 제작되는 시기일 겁니다. 그 시기에 해당하는 구연부랑도 맞지는 않고요. 아무리 위로 올리거나 뒤로 내려도 실제로 이런 것들을 조선시대에 제작된 것들에서는 사례를 찾을 수 없어서요. 이것은 문화재로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건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 ○○○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네. 동의합니다.

○ 문화재연구팀장

다음 안건 김유성 필 송응도입니다.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유성 필 송응도>

○ ○○○ 위원

조사할 때는 몰랐는데 이 앞의 것과 같은 소장자네요.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 작품은 현재는 유리액자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족자였던 것 같고요. 그림에 매가 한 마리 나무에 앉아 있고 그 매 앞쪽으로 시가 하나 적혀 있고 도장이 있는데 도장은 잘 판독을 못했어요. 시도 어법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맨 오른쪽 아래에 ‘갑신춘 서암사’라고 쓰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게 김유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유성은 누구나면 조선시대 도화서 화원이었고 일본에 통신사로 갈 때 같이 수행화원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서암 그림으로 일본의 통신사 시절에 그려준 것 그다음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것들이 일본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또 상당수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제인 매 그림은 특히 일본에서 에도시대에 사무라이들이 굉장히 선호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선화가들이 그린 호랑이, 매는 신령스러운 그림이다. 이것을 집에 갖다놓으면 좋다고 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수출용 그림으로도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김유성의 행적과 그 당시 일본에서 선호했던 송응도 주제와 맞아 떨어지지만 역시 가장 결정적으로 화풍 그다음에 서체 이런 게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가 지정으로 신청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조사자 의견에 따라서 지정 불가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다수)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시죠.

○ 문화재연구팀장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각사 계문입니다.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원각사 계문>

○ ○○○ 위원

원각사 계문은 앞의 정조어필과 같은 분이 신청을 하신 건데요. 세조대에 작성된 것으로 해서 원각사 계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내용은 1464년에 효령대군이 원각경을 강의한 것에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서 영감을 얻어서 그다음 달에 원각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다음 해에 낙성식이 거행이 되면서 이제부터 이 원각사에 임금하고 관리들이 모여서 수록재를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작성이 된 것인데요. 그리고 그 밑에 세조의 작성 일자가 기록되어 있고 세조의 존호가 있고 어압이 있습니다. 존호와 어압까지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는 목판이고요. 그다음 행에 받는 사람 이름으로 추정이 되는데 조안이라고 이 부분만 필사가 되어 있습니다.

목판으로 인쇄가 되었지만 세조대의 것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는 없고 이게 유일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인장으로 ‘承佛之寶’라는 어보가 찍혀 있는데요. 그 앞 페이지의 이미지를 보시면 그 윗부분이 족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윗부분이 계문이고요. 그 밑에는 이것에 대한 해설문인데요. 1963년에 권상로 선생님이 이 내용하고 같이 이런 것을 해설하시는 글을 써서 거기 족자에 바로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위의 계문이 지정 신청 대상인 것이고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족자의 형태로 만들려다 보니까 하단부하고 좌우를 약간 자른, 그러니까 상당부는 그래도 대부분 남아 있는데 하단부와 좌우는 많이 잘려나간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나 원형 자체는 훼손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자료로 상원사 중창권선문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시기는 비슷하고요.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목판본은 아니고 필사본이고요. 그러나 어압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상원사 중창권선문에는 ‘承佛之寶’가 아니라 ‘體天之寶’라고 되어 있어서 어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가 올라가고 ‘承佛之寶’라는 어보가 찍힌 문서로는 이게 처음 나오고 그래서 저희 조사자들은 지정 신청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의견 일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 선생님 의견을 듣고 조금 주저되는 부분이 있어서 ○○○ 선생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 위원

몇 년 전에 화제가 됐던 거죠. 신문에도 떠들썩하게 나왔던 건데, 저는 그

때 나왔을 때 인장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조금 더 봐야 할지. 처음에 저는 약간 보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테두리에 용문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등장하지 않거든요. 이런 게 처음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정해주셨기 때문에 세조 어압이 목판으로 찍혀 있는 것은 처음 나오는 얘기니까요.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고 최근에 불교 서지 쪽에서는 논문이 하나 나온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데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아까 상원사 중창권선문과는 모양새가 완전히 다른데요.

○ ○○○ 위원

저희도 조사할 때 일단 어압까지가 목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상원사 중창권선문의 필사로 된 어압하고 형태가 다르다고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 위원장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 ○○○ 위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장

미술사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없으면 안 하는데 서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 위원

그래서 일단 조금이라도 어쨌든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요.

○ ○○○ 위원

도장의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 ○○○ 위원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인문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저희는...

○ 위원장

권상로 선생님이 저 글 쓴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잖아요. 시대가 20세기니까.

○ ○○○ 위원

저것을 바로 붙여서 족자를 만들어서 저희도 당황스러웠습니다.

○ ○○○ 위원

그런데 해설문 써 놓은 것들이 인목대비 그분 것을 해설문 쓴 것을 같이 지정을 해놓으니까 나중에 보존처리 할 때도 그것을 그대로 같이, 그러니까 처음에 지정할 당시에 그대로 다시 보존처리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따로 보관해야 하고 인목대비 글씨만 해야 한다. 그런데 의견도 지정했을 당시에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것도 지정한다면 처음부터 분리를 하거나,

○ ○○○ 위원

어쨌건 저희가 최종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올리면 위에서 판단할 거잖아요.

○ 위원장

이제 청으로 올라가면 그쪽에서 다시 조사를 할 텐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할 만한 것을 올려야지 아닌 것을 올리면 조금 그렇죠.

○ ○○○ 위원

이게 아마 목판본으로 찍었기 때문에 양식지처럼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지정하고 나면 어디에서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더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선생님, 독립선언서가 아주 단순하게 그냥 써 놓은 독립선언서가 있는데 그것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태극기 등을 막 집어넣어서 만들어놓은 것들이 또 몇 개가 나왔어요. 독립운동사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종류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원본이 있는데다가 이것을 소장을 같이 하고 싶어서 목판을 만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15세기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힘을 얻겠는데 이것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요.

○ ○○○ 위원

교지도 그랬거든요. 교지는 잊어먹는 경우도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청을 하면 써줬어요. 그렇게 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돈 좀 들여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위원장

어떠십니까? 의견을 주시죠.

○ ○○○ 위원

일단은 보류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조금 지켜보시죠.

○ 위원장

보류가 되면 추가로 조사를 해야 하는 거죠.

○ 문화재연구팀장

예를 들어서 과학적 보존조사를 할 게 있거나 다른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보류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것도 할 게 없으면 보류하는 게 조금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보류로 하면 추가 조사가 되어서 다시 결론을 내는 것인데.

○ ○○○ 위원

우리가 할 게 아니라면 올리거나 불가로 하거나.

○ 위원장

예. 둘 중에 하나죠. 가결을 하거나 부결을 하거나.

○ ○○○ 위원

인장하고 서예사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한 번 더,

○ ○○○ 위원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고 국가 지정이니까 국가로 올려서 국가에서 조사를 해보라고 하면 그쪽에서 이런 것을 과학적인 조사도 하고 서예를 하거나 전체에 물어봐서 하거나 하는 것을 국가가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럴 경우는 올려서 거기에서 해결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위원장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어떠세요, ○○○ 위원님?

○ ○○○ 위원

불가라고 한다면 일단 선생님들께서도 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올려서 거기에서 판단을 받는 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그쪽에서는 과학적 조사도 같이 하거든요.

○ 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하죠.

○ 문화재연구팀장

원각사 계문은 국가 지정문화재로 신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목조아미타삼존불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목조아미타삼존불감>

○ 위원장

예. 제가 조사에 참여를 했는데요. 크기는 작습니다. 높이나 너비를 보면 크지 않는데 정확한 연대가 있다는 게 1637년의 연대를 가지고 있는 아미타삼존상이고요. 지금 이것은 포탄형 불감이라고 하잖아요. 열었다 닫았다. 닫으면 저렇게 되고 아래 저 부위를 보시면 접힌 모양이고요. 여기 조그만 복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니다. 그래서 아마 동국대학교박물관에서 구입한 것은 몇 십 년 전에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조사를 할 때 연대가 있고 더구나 요즘에 청에서 국가 지정을 할 때 거의 1660년대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1650년대, 1660년대인데 이게 1637년이라 약간의 훼손은 있지만 좋은 연대인데 다만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었어요. 조그만 상인데 이것이 국가지정으로 가치가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여기에 113페이지의 조사결과에서 보시듯이 조각승 이름도 알 수 있고 연대도 정확하면 이 건물은 충족시키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자. 왜냐하면 앞의 건과 유사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청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가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수합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 위원

위원장님, 여기 1637년 불감에는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남아 있지 않은 거죠?

○ 위원장

1967년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때 문명대 선생님이 그 이전에 사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번 조사 때는 그것을 안 했는데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대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복장이 그 안의 구멍에 들어 있었고 112페이지에 보면 발원문이 있거든요. 발원문이 있는 종이가 있었던 거죠.

○ ○○○ 위원

그것도 다 예전에 문명대 선생님이 조사할 때의 내용이에요?

○ 위원장

네.

○ ○○○ 위원

학회지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물은 없고 보고서에는 현물 사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대를 알 수 있는데, 현물이 있었으면 저희가 이번에 조사할 텐데 없었어요.

○ ○○○ 위원

잃어버렸을까요?

○ 위원장

동국대학교박물관이 그때 보존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유실됐을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과 같은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 ○○○ 위원

불감은 저희 조각사 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원작, 영현작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불감으로 그 시대의 기준작으로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 위원장

예. 작지만 양식적으로는 기준작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작아서요.

○ ○○○ 위원

도금한 색깔이 사진상 이런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닳고.

- 위원장
아니요. 사진상으로 도금 색깔은 조금 안 좋습니다.
- ○○○ 위원
도금이 많이 벗겨진 상태죠.
- 위원장
벗겨지고 상태는 안 좋고요. 깨진 부분도 있습니다.
- ○○○ 위원
목조아미타불감 가운데 위로 올라간 게 지정된 게 있나요?
- 위원장
지금 아미타불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목조는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감은 천은사 정도.
- ○○○ 위원
천은사, 수종사. 형식이 완전히 달라지죠.
- 위원장
예. 수종사도 형태가 다르고. 아미타불감으로 지금 국보가 송광사 것이 있죠. 똑같은 형태예요.
- ○○○ 위원
조선시대 것은 국보는 없는 거죠?
- 위원장
없죠.
- ○○○ 위원
그런데 안에 있는 관련되는 복장물을 잃어버린 게.
- ○○○ 위원

그게 중요하기는 한데.

- 위원장
그게 아마 국가 지정으로 올라가서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조선후기 조각사에서 연대가 정확한 17세기 전반 작품이라 그 기준작으로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인용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문적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 지정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발원문이 없단든지, 요즘에는 발원문도 있고 뭐 다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필요로 하면 좀 어려운 것이고 그런데 우리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본 거죠.
- ○○○ 위원
동의합니다.
- ○○○ 위원
그럼 현원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청헌 계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원이 청헌하고 같이 작업한 그런 건 안 나와요?
- 위원장
현원의 활동은 이것 외에는 잘 안 보이지 않아요?
- ○○○ 위원
근데 여기 증명을 맡은 의정 스님은 화엄사 쪽도 같이 하고 해서 그 계열 일 것이라고 보고, 풍도 그렇고요.
- 위원장
풍도 약간 그렇죠. 올려서 그쪽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 문화재연구팀장
목조아미타삼존불감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가로 판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경제정선 사계산수화첩입니다. ○○○ 위원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겸재정선 사계산수화첩>

○ ○○○ 위원

앞의 그림과 달리 좋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이미지를 봐주시면, 이게 화첩으로 된 것을 쪽 핀 상태로 올라와 있는 건데요. 현재 화첩 형태 자체는 그렇게 오래 된 것은 아닙니다. 20세기 정도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세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그림마다 가운데 선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것을 접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게 20세기 중후반쯤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유행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펴서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현재의 화첩은 옛날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지금 면이 전체가 9개인데 글이 앞뒤로 2개가 있죠. 그리고 산수화가 다섯 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화조화가 있고요. 이게 다 겸재정선의 작품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쓰여 있는 이 글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하곤이라고 정선과 같은 시기에 살았던 문예비평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겸재정선하고도 굉장히 친했어. 그래서 겸재정선의 다른 국가 지정된 그림들에 평도 많이 남겨놨고 또 이 사람 문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두 내용은 두타초라고 하는 이하곤의 문집에 들어 있는데 글씨는 한두 개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1719년에 이하곤이 자기 집으로 겸재정선을 초청해서 그림을 받은 것이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이하곤이 직접 쓴 글씨고요. 이것은 이하곤의 글을 이하곤의 아들인 이석표인가 하는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가 같은 종이에요. 냉금지라고 해서 동시에 무슨 이유인지 이것은 자기가 직접 쓰고 이것은 아들한테 그리라고 한 것 같고요.

순서가 조금 이상한데 이게 원래 순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는 춘하추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그다음에 겨울이 나오고 가을이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고 중간에 초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는 이 글의 내용과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아마도 아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화첩으로 개상을 하면서 무슨 이유인지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현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림은 거기에 세부 사진이 있지만 이 그림이 우리가 흔히 아는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화풍과는 조금

달라요. 겸재정선은 사실 여러 화풍을 종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옛날부터 겸재정선의 남종화풍 또는 문인화풍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연구가 조금 바뀌어서 꼭 그렇게 부르지는 않는데, 어쨌든 진경산수, 금강산을 그릴 때 구사했던 절판식의 강한 질은 필목을 쓰지 않고 연한 먹색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산을 그려냈기 때문에 굉장히 공을 들여 그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기가 많이 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하추동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게 그림을 정성들여서 잘 그렸고요. 그다음에 그림 화면에는 저렇게 원백, 정선의 호라든지 겸재라고 쓰든지. 그다음에 어디에 보면 몇 글자를 써놔서 그림에 대한 품평을 했는데 어쨌면 그것은 이하곤이 직접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겸재정선은 사실 초충도와 인물화도 굉장히 잘 그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초충도도 보면 그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초충도도 아주 색채를 많이 써서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그린 화풍이 있는 반면에 문인들이 조금 더 소략하고 부드러운 색과 상징성을 부각해서 그리는데 이 두 작품에 그게 아주 잘 드러나요. 위에는 맨드라미는 닭벼슬 같다고 해서 벼슬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징성에 개구리, 나비 이런 것을 넣고 아래쪽에 국화, 괴석을 멋들어지게 그리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벌, 나비 등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섬세한 필치로 아주 잘 그려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진위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정선은 44세입니다. 그러니까 정선은 상당히 장수를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비교적 이른 시기의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작 시기가 분명하고 또 왜 이런 것을 그렸는지도 분명하고 그다음에 보존상태도 그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다 뛰어난 작품이라고 해서 국가 지정으로 충분히 신청할 만하다고 판단을 내렸고요.

이것은 저희가 결정할 것은 아닌데 제목은 나중에 바뀌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계산수화첩이라고 소장처도 그렇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초충이 같이 들어가 있고 동시에 그려진 게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혹시라도 지정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면 제목은 다시 고려할 텐데 저희가 그것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 ○○○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없으시면 조사자 결정대로 하겠습니다.

○ 문화재연구팀장

검재정선 사계산수화첩은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심의안건은 다 끝났고요.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심의입니다. 이것은 저번 5차 회의 때 사전 심의 결과로 문화재 지정 예비 대상들을 공고한 결과입니다. 주무관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 주무관

소문사설 등 6건을 2023년 10월 27일 5차 동산분과 회의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가라고 의결하셔서 제가 서울시보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16일부터 한 달간 12월 16일까지 예고를 했고 별도의 의견이 들어온 게 없어서 오늘은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고대로 지정할지 여부는 동의하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 문화재연구팀장

그럼 소문사설, 함허당등통화상현정론, 청자 상감 파어문 매병, 자수 구운몽도 병풍, 자수 매화도 병풍, 김광균 굴레 등 총 6건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을 의결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인데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에서 사업비 조정을 의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도선사 석조관음보살좌상이고요. 유형문화재 제396호이고, 보시면 보관 부분이 손상된 것을 보존처리하는 비용에 대한 재심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다시 받아서 원래는 2,6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1,600만 원 정도로 수정한 내역을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 위원

지난 10월 26일인가에 설명을 한 번 드렸던 사항입니다. 도선사가 이것 말고도 다른 3점을 더 신청했는데 그것들은 다 부결해서 빠졌고요. 이것만 보존처리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는데 금액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해서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정밀진단하고 보관 일부 보존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관 일부만 보존처리 하는 것으로 다시 올라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책정이 되어 있고 해서 승인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 문화재연구팀장

도선사 석조관음보살좌상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해서 사업비 재산정 안건은 가로 의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늘 2024년 첫 위원회를 이렇게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진행을 잘해 주셔서 오늘 안건도 많았는데 편하게 시간 내에 잘 끝냈습니다. 다들 올해 내내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